

## ■ 편집후기(編輯後記)

◆ 이번 호에는 음성학, 사회언어학, 통사론, 일본어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10편의 우수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특히 게재논문 10편 중 3편이 해외에서 학술 활동하는 한국인 연구자를 비롯하여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 연구자의 논문으로 우리 학술지의 국제적인 위상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앞으로도 일본어학 관련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日本語學研究』에 회원 여러분의 귀중한 연구 성과를 활발하게 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

◆ 이번 57집은 일본어학(통사론), 사회언어학, 일본어교육, 음성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특히 이번호에는 각각 연구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연구방법론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것 같다. 국내외 일본어연구자들의 다양한 논문을 통해 연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姜)

◆ 이번 57집에서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읽은 논문은 공교롭게도 모두 음성학 분야였다. 일본어교육현장에서 비모어화자 교수자로 “공기 반 소리 반”을 가르쳐야하는 입장에서 현황 파악과 원리 이해, 발음 생성 등 교수학습의 기반이 되는 연구를 접하여 감사하고 도움이 되었다. 여담이지만, 실무를 담당하건 담당하지 않건 편집이란 이름이 붙은 이후로는 모두 함께 투고 논문 수에 마음을 즐기고 심사결과에 저자 입장이 되어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 같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辛)

◆ 이번 57집은 사회언어학, 일본어교육, 일본어학(통사론), 음성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이며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논문 등이 다수 게재되었다. 이를 통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방법과 이론 등을 어떻게 적용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고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을 통해 자신의 연구를 넓혀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鄭)

◆ 이번 57집에는 오고시 나오키 교수님의 초청논문을 비롯하여 일본어학 및 일본어교육 분야의 다양한 주제의 논문 10편이 게재되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의 논문 게재를 통해 연구를 통한 국제간 교류의 역할을 우리 학술지가 담당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편집과정 중에 느낄 수 있었다. 57집의 투고자와 심사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58집에도 회원 여러분의 귀중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金)